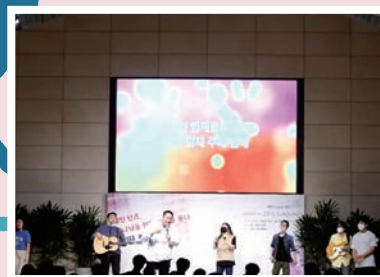


Yullin Newsletter

7
JUL.

열린교회 신문 2022.7 vol.325



말씀솔루션

예배만 참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고 하는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누리는 것일까요?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에 부딪히든지 간에 신앙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의 문제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가 되면 짐승을 데리고 제사의 행렬로 나가고 매일같이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성전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전인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오죽 했으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그 이상입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인생의 모든 목표가 그것 하나에 걸려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셔도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찾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좁은길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척도로 분류하실 때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찾는 자로 분류될 수 있는가 엄숙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님을 찾으라> 설교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하나님을 찾다는 의미/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섯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열린교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소원이 있는 기도



김남준 담임목사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들어가는 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지며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당신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간구와 소원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에서 특별히 ‘간구와 소원’이라는 구절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간구’는 ‘기도’,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히케테리아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

어 성경에서는 ‘간청’, ‘탄원’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간구’는 기도하는 행위이고, ‘소원’은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소원 vs 희망사항

소원은,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희망사항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망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기도는 소원에서 비롯됩니다.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계셨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던 기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당신의 십자가 죽음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요17:17, 21). 그 기도는 훗날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너무 강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니?”라고 물으신다면 망설임 없이 답할 소원이 있습니까? 생을 포기한 사람에게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떠한 욕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완전히 만족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바라는 바는 수없이 많은데, 다 희망사항입니다.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소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소원이 불분명하니까 두리무실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는 한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분명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통받는 만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그런 소원이 없으니 기도가 열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이유

그렇다면 소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할 수 없고, 성경 한 장 읽을 여유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줄리기만 합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해야하는 이유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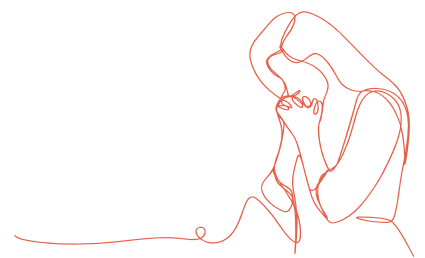
우리 안에 소원이 없는 것은
마음의 초점을 모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 받아
회복될 수 있어

”

의 초점이 여기저기 흔들립니다. 선한 의지가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우리의 은혜의 샘은 고갈됩니다. 은혜의 샘이 고갈되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온전히 실어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라는 바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자녀, 심지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채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러면 어떻게 소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던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겨나 타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와 소원은, 바람이 잘 부는 날에 배가 돛을 활짝 펼치고 항해하는 것처럼 순조롭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아 소원을 품고 열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맺는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의 마음에는 소원이 꺼지지 않았습니. 현실이, 소원하는 바와 다르면 다룰수록 그분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이미 너무 많은 패배로 인해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십니까? 소원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소원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의 소원을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그 소원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담임목사 동정

7.5 구역강의 라이브방송

7.25 노회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기독교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기독교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포항기독교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기독교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기독교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기독교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기독교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인터넷 설교방송

· 기독교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열띠포

청소년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



김진산 고등부 담당전도사
jesusinme1991@naver.com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열띠포가 개최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수련회 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띠포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열띠포는 찬양집회, 청문목답(청소년이 묻고 목사님이 답하다), 기도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찬양집회에서는 지난 겨울수련회 때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로드웨이브와 함께 30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이어진 청문목답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10가지의 주제로 선별하여 학생들이 질문하고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답하셨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에 들어갈 때에 영상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에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을 담임목사님의 답변을 통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캠프 당일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과 지체들을 위해 ‘열린교회 유튜브 채널’에 ‘청문목답’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함께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캠프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과 지체들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열띠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수련회 외에 열띠포라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열띠포를 통해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띠포가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린교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띠포에 참석하고 난 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김하음(중등부 2학년)

저는 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라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 라는 궁금증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등부에 올라와서부터 그런 여러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는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용기도 안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묻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열띠포에서 청소년이 묻고 목사님이 대답해주시는 청문목답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청문목답에 질문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시기 위해 내려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라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썼습니다. 청문목답 시간에 담임목사님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성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라, 하나님은 이성으로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분”이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서 만나는 것이 만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 청문목답 시간에 담임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느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이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보낸 각각의 다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보고, 나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었고 다른 질문들과 고민들도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문목답뿐만 아니라 열띠포 찬양 시간도 특히 생각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주일예배 찬양 시간엔 보통 찬양팀과 선생님들, 소수의 아이들만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봐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열띠포 찬양 시간 때는 다수의 친구들이 모두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불러서 중등부 찬양팀으로서 괜히 제가 뿌듯했습니다.

이번 열띠포는 단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항상 일상 속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생각하는 자가 되자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영 (중등부 3학년)



일단 중등부 캠프에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를 짜서 여러 게임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재미있었고, 어느새 저

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열띠포 때는 담임목사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청문목답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목사님 답변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다음에는 저도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3학년(익명)

전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다 보니 신앙심이 부족했던 저는 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년 지나니 이제 나가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하듯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때는 아무 생각 없는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열띠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열띠포에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부모님께서 나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게 나갔던 열띠포였습니다. 막상 나가보니 재미있고 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열띠포를 한다면 제 의지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띠포 이후 조금씩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요일이 좀 더 뜻깊어지고 더 알찬 하루가 되는 것 같아서 제 생활의 질이 더 나아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7월 추천도서

연애학교

게리 토마스/윤종석 역/도서출판CUP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저자 게리 토마스는 오랜 세월 부부 상담을 하며 상처받고 깨어지며,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만났다. 무엇보다 결혼하기 전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뇌의 생리를 보면 연애 감정은 모래시계와 같다. 이 모래시계가 지속하는 시간은 평균 12~18개월이다. 모래가 내려오는 시간이 2년 정도로 약간 길어질 수 있지만, 결코 아주 길지는 않고 강도도 똑같지 않다. 연애 감정의 평균 수명은 대개 2년 미만이다. 물론 정신적 고통이나 친밀한 소통의 시기에는 로맨틱한 감정이 되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점차 감정은 ‘뜨거운 흥분’에서 ‘따뜻한 의지’로 바뀐다.” 이 책은 불타는 열정을 넘어 평생을 함께할 따스한 관계를 지속하는 소중한 만남을 위한 나침반이다.(인터넷 교보문고)



포토에세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임직후기1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장로



김춘경

세워주신 섬김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감당하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아 아침마다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많은 시련과 훈련으로 저를 다듬으시고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셨기에 그 뜻에 합당한 섬김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성경열

피택되고 임직식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 새삼 직분의 무게를 느껴봅니다. 새벽기도와 금식기도, 산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며 심히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야곱을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도를 섬김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충직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영춘

부족하고 흠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후 나의 나 됨도, 해야 할 일도, 마주할 고난도 주님과 지체들과 함께 할 것이기에 든든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장로로서 섬김과 사랑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수집사



강성만

안수집사로 피택된 이후 임직교육을 받으면서 중직자라는 위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저의 모습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사역을 간신히 감당하면서 어설프게 지나는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직자의 덕목은 겸손과 눈물이라는 설교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와 지체를 위해 더욱 깊고 묵직한 발걸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묵묵히 주어지는 역할을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감당해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김민경

처음에 안수집사 피택자로 세워질 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되나 생각했고 또 이 가운데 주님의 섬리가 있을 텐데 거절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 같아 혼동이 되었습니다. 임직자 교육에 들어와서도

너무나도 인품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훌륭하신 집사님들을 뵈며 사실 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더 큰 그림 안에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더 잘 감당해 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요한 진리 안에서 기도와 영혼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쁜 맘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섬기려 합니다.



김영규

안수집사 지명 받기 약 1달 전에 어떤 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직을 권유받았을 때 바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직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하신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내가 이를 거절하거나 등한시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때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무른 이 진흙덩이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안수집사의 직분과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김재현

이사로 인해 의도치 않게 두 번의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임무를 받게 됨이 좋았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가장 바쁜 기간 속에서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지속적인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 교회와 하나님나라를 충성되게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현호

먼저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라는 뜻으로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웅진

공동의회를 통해 피택이 되어 임직자교육을 15주 동안 받았습니다. 교육 받는 동안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무사히 교육과 임직을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설교 청취, 녹취, 스튜디오와 새벽기도, 금식철야기도, 산상기도, 개척 당시 열린교회 탐방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어떤 것이 남았고, 어떤 것이 버려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직분을 받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교육과정 중의 말

씀 묵상과 새벽 기도가 저에게 있어서 남아 있는 큰 열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순간순간 명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주님을 생각하면 살고 싶습니다.



박창일

자격 없는 자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오류 투성이인 저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직분을 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가 섬긴 것 같이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가슴에 달았던 흰국화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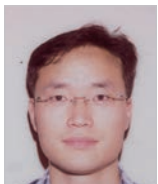
백승태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 뜻이 있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임직훈련기간이 많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온전한 자기 깨어짐과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안수집사로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주님의 종 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백인봉

회심은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던 저를 아내를 통해 열린교회로 인도하시고,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 동안 귀한 목사님을 통해 목양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하셨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견뎌 낼 신앙의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귀한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예의 있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안성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며, 목양과 전도에 힘쓰라는 목사님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어진 자리와 경계를 잘 지키, 교회 공동체를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섬김으로 제가 여기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돌아보며,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며, 항상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계상

아무 쓸모 없는 죄인을 교회로 불러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주의 교육을 통해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

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주신 직분에 고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이석웅
중직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나타낸 신앙생활의 모습을 열린교회를 출석한 후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놓으셨습니다. 불순종하였고 믿음 약한 저를 말씀과 기도로 단련시키시고 교회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헌금위원, 교회청소, 국내외 아웃리치 참여, 목양팀 그리고 구역장 등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섬김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교육과정을 통해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임직자로서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맡겨주신 섬김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정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도 벅찬데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것을 주신 것 같아 어깨가 많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가진 것이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를 높여 섬길 수 있는 겸손함과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다짐을 잊지 않고 평생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석봉
청춘을 바쳐 섬겼던 교회를 떠나 열린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선명한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익숙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식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훈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도록 하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선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을 위한 교육 기간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진리의 말씀이 저를 살살이 비추 때마다 저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확실히 보게 되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함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참된 섬김을 본받아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교육과정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새롭게 들었으며 나 자신의 동기와 삶의 여정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수기도와 예배의 과정, 가족들의 축하와 구역식구들의 축하, 지인들의 선물, 교회의 선물을 받으면서 결혼할 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축하를 받은 것 같지만 권사가 된다는 것이 축하 받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가 된다는 것은 신앙의 본보기, 기도의 본, 전도의 본, 예배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주체로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큼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임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 감격을 누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해 봅니다.



강은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겸손히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무권사



강은숙
겨울에 시작해서 봄에 임직식을 하기까지 삶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처



새공과소개/〈자기 깨어짐〉

자기 깨어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하여 〈죄와 은혜의 지배〉를 구역 공과로 나누었습니다. 신자로서 실제적인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 죽임의 실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부패한 본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죄 죽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깨어짐입니다. 자기 깨어짐은 신자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경험입니다. 자기 깨어짐이란 신자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기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7월부터 우리는 담임목사님의 저서 〈자기 깨어짐〉을 구역 공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신자 안에 있는 정욕의 원천인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영혼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깨어짐의 과정에서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으로써, 믿음과 순종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며, 거룩한 신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

(목양센터)

교회 소식

2022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학부모 기도회

- 미취학부

일시 : 7/2, 7/9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세빛빌딩 3층 유치부실
돌봄 : 세빛빌딩 2층 유아부실
대상 : 교회학교 미취학부 교사 및 학부모

- 취학부

일시 : 7/2, 7/9, 7/16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열린빌딩 1층 소년부실
대상 : 교회학교 취학부 교사 및 학부모

2022 여름성경학교 섬김 신청

- 어린이부

모집인원 : 00명
신청방법 : 여름성경학교 배너 하단의 QR코드로 신청
문의 : 영아부(김민정 전도사)/유아부(이지연 전도사) 유치부(신하경 전도사)/유년부(정명원 전도사) 초등부(김태영 목사)/소년부(김민성 전도사)

- 사랑부

모집인원 : 30명
신청방법 : 여름성경학교 배너 하단의 QR코드로 신청
문의 : 양승희 전도사

-2022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은 7면 참조

키즈랜드 재개관

위치 : 세빛빌딩 2층 키즈랜드
운영시간 : 주일 오후 12시 ~ 오후 4시
운영대상 : 4~7세 성장반 교육자 자녀
문의 : 이지연 전도사



특별기도세미나 취재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



지난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3층 예배실에서 특별기도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초대 강사인 김장환 목사님(극동방송 이사장/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은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한국전도대회 때 통역을 맡았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도세미나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사회 안팎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는 찬양과 라파금 가야금단의 연주로 시작되어, 김성구 목사님의 2023년 6월 3일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집회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49년 전 여의도 광장에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이고, 7만 2천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교회에 전도와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이 뒤따르는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묻는 질문을 뒤로 하고 단상에 오른 김장환 목사님은 여든여덟의 고령이 무색하리만치 형형한 눈빛과 카랑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로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꼬부랑 할머니의 아리랑 곡조에 얹은 찬양 일화를 들려주며, 아리랑이나 어느 곡조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기를 축원하였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기도하는 손으로 유명한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와 그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을 소개하며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위로’라는 뜻인 느헤미야, 그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할 수 있게 하였고, 허물어진 대문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괴로움을 덜어주고 기쁨을 순화시키고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1:4). 하나님께서 망가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대문을 수복시키고 고치신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눈물과 금식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임을 강권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시라 확실히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는 톨스토이의 “기도를 마치고 잠 자리에 들면 내 마음이 가볍고 기쁨에 넘친다”를 인용, 매일 잠자기 전과 새벽에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더불어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가능케 했던,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던 목사님들, 홍해를 가르든 모세의 기도,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된 아브라함의 기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기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으며,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은 것을 되새기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심을 거둬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떻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시절 미군의 하우스보이 시절을 거쳐 9년 동안 그를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공부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칼 파워스’ 미군 상사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가난한 하우스보이가 미국에서 목사가 되어 한국에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임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가 잘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쟁 때 죽어가는 미군 사병을 구한 어느 사병의 일화를 들려주며 말씀을 맺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기도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약속과 기도를 믿고 전우를 구하러 포탄 속에 뛰어든 한 사병의 이야기는 또 한 번 기도가 지닌 힘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전화선 같습니다. 소리를 낼수록 더 잘 들리게 하고, 소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할 때 더욱 기뻐하며 만나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

취재: 최희주 기자 ellyee@hanmail.net

어린이도서관 재개관

예빛 라이브러리, 예수님의 빛을 밝히다



김태영 초등부 담당 목사
jeons-tai1991@naver.com

열린빌딩 2층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은 처음 개관한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학교의 많은 아이들에게 독서의 공간이 되었고, 지적 양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만큼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TF팀이 조직되었고 수 차례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계획은 구체화되었고 약 두 달 간의 공사를 거쳐 5월 29일 주일에 새롭게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어린이 도서관의 이름을 위하여 네이밍 공모전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예빛 라이브러리’는 예쁜 이름이 어린이 도서관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빛 라이브러리는 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철학, 사회,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을 위한 도움을 주는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동안 오래된 도서를 새로운 도서로 전면 교체하였고 내부의 인테리어 역시 본관의 퓨리탄 라이브러리와 같이 모던하고 세련되게 변경하여 미취학, 저학년 뿐만 아니라 고학년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바

뀌었습니다. 또 본관의 퓨리탄 라이브러리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하여 PC 및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빛 라이브러리 활용을 위하여 부서 사역과 도서관 사역을 연계하여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어린이 도서관과 다르게 월 1회 행사를 계획하여 전자기기나 대중매체에 익숙하여 독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즐겁게 독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롭게 개관한 예빛 라이브러리에 많은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방문하여 독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운영시간 : 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섬김 및 문의 : 전경미 집사 (어린이 도서관 팀장)

새가족

▶▶ 장년

박종석(77) 주정운(88)
송경희(81) 함연주(72)
최영임(57) 변은옥(63)
은희천(86) 이인숙(65)
백 경(71) 정은향(97)
김한솔(84) 김의정(86)
함영찬(81) 이수현(72)
차영혜(89) 김지훈(88)
이도홍(59) 박은진(81)
송점희(65) 김정희(53)
엄수연(77) 이기홍(54)
문도하(89) 윤경인(61)
이승환(85) 김종원(62)
서혜석(87) 이건영(88)
김민우(82) 강현진(86)

▶▶ 청년

문아름(86)
양은진(97)
이화진(76)
이수진(99)
이한영(99)
김주표(95)



신약개관학교 후기

하나님나라를 풍성히 누리기

이가은 청년부
cleequine@gmail.com



이번 신약개관학교를 6주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 밖으로 재밌다는 표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지만, 정창욱 교수님의 강의는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교재도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약 읽기! 저는 강의 중에 교재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좋았고, 과제를 통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것이 저에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에 대한 의무감으로 억지로 읽기 시작해도, 읽고 나면 은혜로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신약개관학교에 갈 때는 길이 막힐 때도 있었고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늦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반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힘을 얻어서 늘 가벼웠습니다. 강의 끝나고 매번 간식도 정성스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섬겨주신 정창욱 목사님, 신하경 전도사님, 양규남 집사님께 후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사를 전합니다.

신약개관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다짐을 했지만, 그 짧은 사이 저는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삶이 지치는 순간이 찾아왔었는데, 정창욱 목사님이 강의 중에 개인 경건 생활을 다이어트에 비유하신 것을 생각해 내고 다시 말씀을 읽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처럼, 하루 멀어졌더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환영축제 후기

감사합니다!



배주희 장년6교구
joohee117@nate.com



안녕하세요? 장년6교구 배주희 자매입니다. 2주 전 성장반을 마치고, 3년 만에 열린다는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열린교회의 진면모를 발견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새가족들을 위해 모든 교역자님, 장로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인사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스크린으로 소개를 대신할 법도 한데, 바쁜 시간을 내셔서 환영회를 찾아주시고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열린교회의 섬기시는 분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시 예배를 마치고 의상도 갈아입으시고 한걸음에 달려 오셨을 목사님, 사모님의 열정,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열린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을 얼마나 힘써 하고 계신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러브스토리가 결혼을 결심했던 초심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린교회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준비하며 몇 달을 기도 끝에 결정한 교회입니다. 결혼생활을 열린교회와 시작한만큼 결혼생활의 지침을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을 처음 뵈 특별한 자리에서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남편으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열렬히 조력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

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강의 중에 특히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다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낼 힘과 상황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꾀를 내고, 내 힘으로 헤쳐 나가려고 하느라 골치가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 뜻과 평강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과 사람, 환경에 집중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아등바등 거리는 대신 하나님 관점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힘든 일을 만나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 않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개관학교를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제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후하게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 하며 하나님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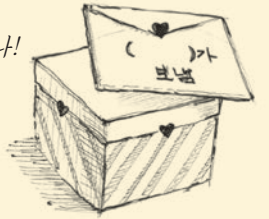
곰곰이 생각

좋은 선물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

글: 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하나님은 누가 보냈는지 모를 경우입니다.

출처를 모르니
감사할 대상이 없구나!



다른 하나는 내 선물인지 모를 경우입니다.



설마 내 선물이겠어?

신앙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푸른 하늘을 보아도, 새소리를 들어도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멋진 뿐이죠.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 감정만 남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상)

영아,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 7월 16일(토) ~ 17일(주일)

장소 : 영아부(별관 1층 영아부실)

유아부(세빛빌딩 2층 유아부실, 4층 고등부실)

유치부(세빛빌딩 3층 유치부실)

유년,초등,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 7월 23일(토) ~ 24일(주일)

장소 : 유년부(열린빌딩 2층 유년부실)

초등부(열린빌딩 1층 및 2층 초등부실)

소년부(세빛빌딩 및 열린빌딩 1층 소년부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 7월 16일(토) ~ 17일(주일)

장소 : 열린빌딩 1층 중등부실

중등,고등부 여름수련회

일정 : 7월 21일(목) ~ 23일(토)

장소 : 각 부서실 및 본관 3층 예배실



만남 품은 열린교인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고마운 교회

이경숙 장년5교구
kslcha00@naver.com



할렐루야!! 이 시대에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는 열린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요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새벽기도를 따라다니며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을 데리고 열린교회에 기도하러 가니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고 하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먹고 사는 데 바빠서 3년 정도 교회에 못 나갔을 때가 있었지만, 둘째 딸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게 되어 그것을 계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30년 정도 경남 창원에서 터잡고 있었지만 세 자녀가 결혼과 직장으로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근접하게 지내고자 안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들어올 집을 구하던 때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코로나 팬데믹 기간까지 겹쳐서 마땅한 거주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딸의 강 권으로 열린교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집을 일순위 조건으로 해서 찾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가격대와 날짜가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열린교회에 오기 전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열린교회에 와서는 신앙적으로 정말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많지 않고,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풍부한 청교도 복음 중심의 지식으로 설교하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열린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코로나가 시작하는 2020년도 3월이었습니다.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했기에 마스크 안 쓴 얼굴을 보는 것은 교역자 분들, 목사님뿐이었습니다. 5월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반을 시작으로 열린교회의 교육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교회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이곳에 오면 다시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이어서 배워야 하는 교육이 많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해결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익숙하긴 했지만 내가 믿고 있는 도리를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린교회에서 각종 교육을 통해 이런 갈급함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랄 따름입니다.

열린교회는 둘째 딸이 2011년부터 다니고 있었기에 딸 집에 가끔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가대가 없고, 주보도 없고 기존 교회와 분위기가 다른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교회에 이제는 내가 등록하여 내 교회로 다니고 있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구나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 안양에 적응할 새도 없이 가까이 살던 딸네 가정이 2020년 9월에 이집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 부부는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사위는 이집트 교회에서도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이 먼 아프리카 땅으로 잠시 나가 있게 되었지만, 저는 열린교회의 새가족반과 성장반과 교리반, 기도학교, 신약개관학교 등의 교육에 참여하면서 잘 적응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딸이 잠시 한국에 들어와도 교회 근처에 친정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 이사 과정에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하나님께 응답받은 간증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다니던 직장 일로 주일성수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는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대장포진이라는 병을 주셔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신 것도 지금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육신의 먹고 사는 것보다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손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 매여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교육 과정에 모두 참석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화요전도학교와 기도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깨달음을 주시고 특히 조별 나눔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경험의 나눔으로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릴레이기도를 통해서 많은 환우를 위해서 기도드림을 감사합니다. 릴레이기도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간 저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던 나에게 병을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전부터 예비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몸에 맞는 옷처럼 익숙하고 편하게 생활하던 고향을 떠나서 환갑을 넘겨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만난 열린교회, 딸 가족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아는 친척이나 이웃이 없는 곳에서 함께해 준 열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나이 들어 제대로 배우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양약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 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파송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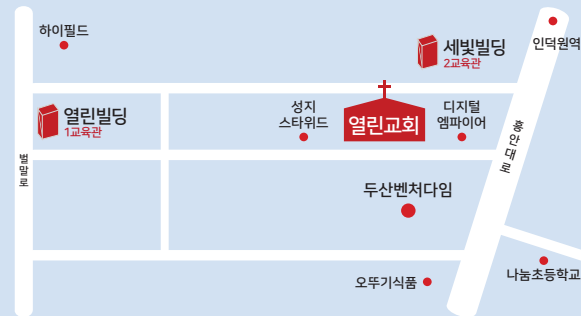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안양 8, 8-1 군포 540, 8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에피그람, 한 문장 / 죽음은 삶보다 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꿈같은 인생이라는 말은 있어도 잠깐 지나가는 죽음이라는 말은 없다.